

# 백용성의 사상과 화과원에서의 저술활동

이수창(마성) - 팔리문헌연구소장

---

• 목 차 •

- I. 머리말
  - II. 백용성의 사상과 화과원의 성격
  - III. 화과원에서 저술한 서적의 내용
  - IV. 맺음말
-

## I. 머리말

白龍城(1864~1940) 大宗師<sup>1)</sup>는 禪敎律에 정통했던 당대의 善知識이었고, 譯經家였으며, 著述家였다. 또한 그는 大覺敎를 창립하여 새로운 불교운동을 일으킨 先覺者였으며,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민족의 지도자였다.

백용성은 晩年에 경남 함양군 백전면 백운리 50번지 白雲山 華果院에 주석하면서 禪農佛敎를 몸소 실천하면서 수행과 저술활동에 전념했다. 백용성이 화과원에서 저술한 책들은 일제치하에 있던 당시 조선불교계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엿볼 수 있다.<sup>2)</sup> 또한 이 저술들은 백용성의 대각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백용성의 사상과 화과원의 성격 및 백용성이 만년에 화과원에서 저술한 책들에 담겨 있는 그의 주된 사상이 무엇이었는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화과원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화과원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김광식이 최근에 발표한 논문이 최초인 것 같다.<sup>3)</sup> 그리고 백용성이 화과원에서 저술한 『淸空圓日』, 『吾道の眞理』, 『吾道는 覺』 등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白龍城大宗師叢書』(이하 『叢書』로 약칭)를 간행하면서 붙인 「해제」가 유일한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백용성의 사상과 화과원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 화과원에서 백용성이 저술한 서적들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백용성의 사상과 화과원의 성격

---

1) 대부분의 학자들은 백용성을 ‘禪師’라고 존칭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禪敎律에 정통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大宗師’로 호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하 존칭은 생략한다.

2) 신규택은 『淸空圓日』 「해제」에서 “이 책의 학술사적 의의는 일제하 당시 조선불교계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했다.

3) 김광식(2016), 111-144.

## 1. 백용성의 사상

백용성의 사상은 한마디로 ‘大覺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터득한 ‘깨달음(覺)’을 세상에 널리 펼치기 위해 ‘大覺教’라는 새로운 교단을 창립했다. 그는 일생동안 수많은 서적을 번역하고 저술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대각사상을 闡明하고 있다.

백용성의 대각사상은 1927년 대각교 창립 선언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초기 대각사상은 1930년 3월 15일 大覺敎堂에서 발행한 『覺海日輪』에 나타난다. 이 책의 원고는 1929년 12월에 탈고했다.<sup>4)</sup> 『각해일륜』에 대해 한보광은 “그의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저술이다. 이를 통하여 대각교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대각교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sup>5)</sup>고 했다. 백용성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대각사상은 정교하게 다듬어나갔다.

특히 그가 만년에 저술한 서적에 그의 대각사상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는 대각교를 창립하게 된 연유를 1936년 4월 6일 大覺敎中央本部에서 발행한 『修心論』에서 밝히고 있다.

‘大覺’이라는 말은 온 천하의 경전에 가득 차 있으니 묻고 의심할 것이 없다. 석가모니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며, 이름을 妙覺이라 하셨다. 또 三賢,<sup>6)</sup> 十地,<sup>7)</sup> 等覺<sup>8)</sup>을 초월하셨으니 ‘妙覺’이라 하셨다. …… 이것은 석가 대성이 비로소 敎外別傳을 眞歸祖師에게 받으신 것이니 이렇게 하여 大覺이 되신 것이다.<sup>9)</sup> 大覺께서 진귀조사에게 법을 받으신 뒤에, 자신의 제자 人天 백만 억 대중을 모으시고 자신이 받으신 법, 즉 大覺心印을

4) 『叢書』 제10권, 449.

5) 한보광(2002), 116.

6) 三賢은 성자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닦는 세 가지 수행 단계를 말한다.

7) 十地는 보살이 수행 과정에서 거치는 열 가지 단계를 말한다.

8) 等覺은 보살의 수행 과정 가운데 十地 다음의 단계. 즉 바르고 원만한 부처의 깨달음인 妙覺의 앞 단계를 말한다.

9) 『修心論』을 번역한 범준은 진귀조사가 석가모니에게 조사선을 전했다는 설(眞歸祖師說)은 우리나라에만 전해진 것으로, 오랫동안 진위의 논쟁이 있었음을 각주에서 밝히고 있다. 『叢書』 제1권, 791, n.24 참조.

설하시니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었다. 그때 마침 가섭존자가 빙긋이 웃었다. 大覺께서는 가섭이 깨달은 줄 아시고, 세 곳에서 법을 전하시니 이것이 곧 교외별전을 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세 곳에서 전하신 법을 말하면, 첫째는 多子塔 앞에서 자리를 반으로 나누시고, 둘째는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드시고, 셋째는 사라쌍수 사이의 괘 안에서 두 발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것이 곧 大覺의 뜻이다. 그러므로 내가 ‘大覺教’라 한다.<sup>10)</sup>

이와 같이 백용성은 ‘大覺教’라는 교단의 명칭이 석가모니불의 ‘大覺’에서 淵源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대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하고 있다.

내가 처음 출가할 때에 한 사람도 나에게 道를 證明해 준 사람이 없었다. 이후 내가 스스로 大覺의 聖典을 보고 명확(廓然)함을 믿고, 換然하고 명백해졌으니, 도의 근원은 ‘깨달음(覺)’에서 나온 것이다. ‘깨달음(覺)’이라는 것은 本覺, 始覺, 究竟覺이 원만하여 둘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sup>11)</sup>

백용성은 “도의 근원이 ‘깨달음(覺)’에서 나온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전을 보고 터득한 것이라고 술회하고 있다. 그가 터득한 깨달음이란 본각, 시각, 구경각이 원만하여 둘이 없다는 것이다. 백용성은 본각, 시각, 구경각이 어떻게 다른가를 『晴空圓日』(1933)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大覺’이라 한 것은 本覺의 오묘한 본성을 두고 한 말이다. 또 ‘원래의 밝음(元明)이 비추어서 대상을 낳고, 대상이 성립되어 비추는 성품이 사라진다’고 하셨다. … 예컨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미혹과 깨침의 원인을 알아차려, 본래부터 오묘하게 갖추어진 본성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름하여 ‘始覺’이라고 한다. … 이 본성도 역시 그러하여 무명의 미혹을 녹여 없애고 한번 참 성품의 바탕을 완성하면 다시는 범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究竟覺이라고 이름한다. 또 (구경각) 시각과 본래 다르지 않아서 스스로 깨침과 남을 깨침(自覺覺他)이 원만하여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름하여 구경각이라고 한다.<sup>12)</sup>

---

10) 『叢書』 제1권, 791.

11) 『叢書』 제1권, 793.

12) 『叢書』 제1권, 690, “其大覺云者는 指其本覺妙性之謂也니라. 又云元明이 照하여 生所하고 所立하

백용성이 말하는 ‘대각’이란 ‘본각의 오묘한 본성(本覺妙性)’을 뜻한다. 그리고 ‘始覺’은 ‘본각의 오묘한 본성’을 알아차리는 것을 뜻하고, 究竟覺은 본각과 시각이 둘이 아니며, 본래의 참 성품을 완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백용성은 입적 2년 전인 1937년 6월 20일 탈고한 『吾道는 覺』에서 최종적으로 본각, 시각, 구경각의 개념을 좀 더 명료하게 다듬었다. 이른바 “본각이라 하신 말씀은 부처(佛)와 祖師가 나기 전부터 ‘本來覺’이라는 뜻이고, 시각이라 하신 말씀은 일체중생의 성품은 본래 각임을 깨달았다는 말씀이며, 구경각이라 하신 말씀은 본각과 시각이 둘이 아니어서 결국 둘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다.”<sup>13)</sup>고 했다. 다시 말해서 본각이란 佛과 祖師가 나기 전부터의 본래 깨달음 자체를 말하고, 시각이란 일체중생의 성품은 본래 깨달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며, 구경각이란 본각과 시각이 둘이 아닌 하나로 완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이 백용성의 大覺思想이다. 백용성은 자신이 터득한 이 대각사상을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 2. 화과원의 성격

華果院은 경남 함양군 백전면 백운리 50번지에 위치해 있다. 화과원은 白雲山 8부 능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다. 화과원으로 들어가는 절골 입구에는 신선암(전 영은사지)과 白雲庵이 있다. 백운암 경내에는 영은사지 부도군이 있고, 약간 떨어진 곳에 영은사지 석장승(경상남도 민속자료 제19호)이 남아있다.<sup>14)</sup>

이번 화과원에 대한 학술회의를 위해 사전에 화과원을 답사했다. 화과원 답사는 2017년 7월 11일 실시되었다.<sup>15)</sup> 그때 답사팀은 이구동성으로 ‘백용성은 왜 이 깊은 산속에

야 照性이 亡이라 하시니 … 如有智者가 覺悟迷之原因하며 覺悟本妙眞性故로 名曰始覺이라 하니라. … 此性도 亦然하여 消融無明惑하고 一成真性體하면 不復重爲凡할새 名曰究竟覺이오. 又始本無二하여 自覺覺他가 圓滿無二故로 名曰究竟覺이라 하니라.”

13) 『叢書』 제2권, 670.

14) 東西文物研究院(2016), 5.

15) 화과원 답사는 경남 함양군 문화관광과 이노태 과장과 이재신 계장의 안내로 실시되었는데, 답사자는 김광식, 한상길, 이재수, 최동순 교수와 마성 스님 등 5명이었다.

화과원을 설립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sup>16)</sup> 답사팀의 관심은 처음부터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의문은 화과원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咸陽白龍城禪師華果院遺墟址’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되어 있다.(2000년 8월 31일 지정)<sup>17)</sup>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에 소개된 화과원 유허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화과원은 백룡성선사가 선농불교(禪農佛敎)를 실천하며 일제시대 독립운동 자금조달을 위한 농장이다.

백룡성선사(1864~1940)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가이고 불교에서는 반농반선의 선농불교를 주장·실천하였다. 백룡성선사는 이곳의 산림과 황무지를 개간하여 과수를 심고 화과원이라는 농장을 설립하였다.

화과원 유허지는 백운산의 8부 능선에 위치하여 외부에서의 접근이 쉽지 않다. 이곳을 거점으로 일제의 억압을 피해 뒷산으로 넘어 다니며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전한다. 현재 이곳에는 법당터, 선방터 등 9개소의 건물터와 축대, 석조물, 가마터 등이 남아 있고, 고목이 된 배나무 등의 과일나무가 주변에 많이 남아 있다.

위 설명에 따르면, 화과원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한 ‘농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곳에는 법당터와 선방터 등 9개소의 건물터와 축대, 석조물, 가마터 등이 남아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만일 화과원을 ‘농장’이라고 본다면, 국가 지정문화재인 史蹟으로 지정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념물은 성곽·옛 무덤·궁궐·도자기가마터 등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sup>18)</sup>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16) 지난 2017년 7월 11일에 화과원 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화과원에 대한 학술회의를 위해 직접 화과원을 답사하기로 했던 것이다.

17) 경상남도 기념물은 지방기념물 중에서 경상남도 내에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이것은 최고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적지(史蹟址)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경상남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지정한다. 화과원은 이러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18)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개념’ 참조.

화과원은 1927년경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용성은 64세였던 1927년 대각교의 창설을 선언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禪農佛敎를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sup>19)</sup>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인 1927년 4월 8일 延邊의 龍井에 大覺敎會와 禪農堂이 설립되었다.<sup>20)</sup> 화과원의 선원은 1941년 禪理參究院에 편입될 때까지 유지되었다.<sup>21)</sup>

김광식은 「화과원과 백용성, 수법제자의 재인식」이라는 논문에서 “지금껏 화과원을 서술함에 있어서 백용성이 설립한 농장 혹은 과수원의 성격으로 이해하였다.”<sup>22)</sup>고 말하고,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화과원은 수도원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sup>23)</sup>고 결론지었다. 즉 김광식은 화과원의 성격을 ‘과수원’으로 이해했다가 ‘수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화과원을 ‘수도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김광식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필자는 「白龍城의 禪農佛敎에 대한 再照明」이라는 논문에서 이미 “경남 함양군 백운산 화과원은 延邊의 禪農堂과는 약간 다르게 운영되었던 것 같다.”<sup>24)</sup>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화과원이 단순히 농장이나 과수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화과원은 연변의 선농당과 같이 단순히 선농불교를 실천하기 위한 농장이나 과수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우선 화과원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백용성의 선농불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흔히 선농불교하면 百丈淸規에 나오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백용성이 말하는 선농불교는 自給自足を 위한 生産佛敎였다. 그가 꿈꾸었던 선농불교는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 ‘소비하는 불교’에서 ‘생산하는 불교’로, ‘依他的인 삶’에서 ‘自利的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두 선농불교의 개념 속에 포함시켰

19) 이수창(2015a), 86.

20) 이수창(2015a), 86-87.

21) 김광식(2016), 123.

22) 김광식(2016), 113.

23) 김광식(2016), 130.

24) 이수창(2015a), 87.

다.<sup>25)</sup>

실제로 연변의 대각교당은 단순히 승려들이 농사짓고 수행하는 곳이 아니었다. 백용성은 유랑하던 동포들이 大覺敎會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것이다.<sup>26)</sup> 그렇다고 해서 화과원에 주석하고 있던 승려들이 전혀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禪農을 다른 말로 半禪半農이라고 한다. 半農半禪이 아니다. 반선반농이란 선이 위주이고 농사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반면 반농반선은 농사가 목적이고 수행은 수단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선농불교의 목적은 수행이고, 수행을 위한 방편 혹은 수단이 노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화과원을 과수원으로 이해하게 되면 농사가 주된 목적이 되고, 수행은 보조 수단이 되고 만다. 백용성이 꿈꾸었던 선농불교는 신도의 시주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면서 수행하는 것이었다.

김광식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이종익은 화과원을 ‘修道院’이라고 기술했다.<sup>27)</sup> 또한 『조선일보』의 심두섭 기자는 “경남 함양군 백양산(백운산의 오기)에 가서 산림, 황무지 등 수만 평을 매입해 그것을 개간하고 과수 야채 마령 등을 재배하고 자급자족의 정신으로 일하고”<sup>28)</sup>라고 했다. 또 조용명은 “용성스님이 새로운 총림을 개혁하고 과일나무를 심고 임야를 개발하며 총림을 구상하셨던 곳이다.”<sup>29)</sup>고 했다. 김달진은 “백용성스님이 창립한 항일불교 단체인 대각교가 운영하는 화과원에서 반선반농의 수도생활을 하면서”<sup>30)</sup>라고 했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백용성이 꿈꾸었던 화과원은 禪·敎·律을 兼修하는 청정한 수행도량, 즉 叢林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화과원은 농장이나 과수원이라기보다 수행도량, 즉 ‘수도원’이나 총림의 성격에 가깝다. “이곳에서는 실제로 禪院이 개설되어 운영되었다. 조선불교선종총림 종주 백용성이 1938년에 발급한 安居證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sup>31)</sup> 또한 백용성의 전법제자

---

25) 이수창(2015a), 88.

26) 이수창(2015a), 87.

27) 김광식(2016), 113 재인용.

28) 심두섭(1933): 김광식(2016), 116 재인용.

29) 조용명(1980), 97-98; 김광식(2016), 124 재인용.

30) 김달진(1990), 235; 김광식(2016), 126 재인용.

31) 이수창(2015a), 87.



있던 邊峰庵의 친필 이력서에 “1936년 3월부터 함양군 백전면 화과원에서 화엄경을 연구하고 三冬에는 修禪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화과원은 외부와 차단된 ‘수도원’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은 거의 확실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과원은 백용성이 대각사상을 펼치기 위한 근본도량, 즉 총림을 꿈꾸고 선농불교를 실천했던 곳이다. 또한 실제로 백용성의 제자들이 치열하게 수행하고 불교학문을 연찬했던 수행도량이었다. 화과원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화과원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도 이곳이 백용성 대종사가 수행하던 도량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III. 화과원에서 저술한 서적의 내용

백용성은 이미 1928년도에 『大方廣佛華嚴經』(이하 『화엄경』으로 약칭)을 한글로 번역했다. 그런데 1937년부터 1938년까지 華果院에서 다시 『화엄경』을 번역했다. 그러나 그가 재번역한 『화엄경』은 간행되지 못한 채, 그 원고만 남아있다.<sup>32)</sup> 백용성은 화엄경 외에도 화과원에서 『晴空圓日』(1933년), 『吾道の 眞理』(1937년), 『吾道는 覺』(1938년)을 저술했다. 이 책들은 백용성이 만년에 저술한 것이기 때문에 백용성의 대각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화과원에서 저술한 서적들은 모두 대각교의 교리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933년에 간행된 『청공원일』은 한문과 현토로 작성된 논서이다. 반면 『오도의 진리』와 『오도는 각』은 대각교의 교리를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요약 정리한 소책자이다. 세 저서의 문장과 서술의 형식 등은 다르지만 핵심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특히 『오도의 진리』와 『오도는 각』은 대각교가 해체된 이후에 저술되었다. 대각교는 1936년 경 해체되었고, 1938년 朝鮮佛教禪宗에 편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용성

32) 백용성의 화엄경 번역 원고는 『白龍城大宗師叢書』(이하 ‘叢書’로 약칭함) 제2권에 影印되어 있다.

은 병든 몸으로 자신의 대각사상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오도의 진리』와 『오도는 각』을 저술했다. 이를 통해 백용성이 비록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대각교』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대각사상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1. 『晴空圓日』

『청공원일』은 1933년 6월 17일 大覺教中央本部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백용성이 1933년 3월 14일 화과원에서 탈고한 것이다. 책 말미에 “大覺應世二千九百六十年三月十四日”<sup>33)</sup>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933년은 대각교 창립 12년에 해당된다.<sup>34)</sup>

이 책은 漢文과 懸吐의 문장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또한 이 책은 自序와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에서 별도로 소주제를 다루고 있다. 각 장의 제목 아래 ‘白雲子’라는 가상 인물을 등장시켜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에 저자 백용성이 직접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신규탁은 이 책의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용성은 『대승기신론』 사상에 입각하여 인간 마음의 본질을 규명하면서, 『능엄경』 사상에 입각해서 세계의 생성과 본질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간화선 사상에 입각하여 수행 이론을 규명했다. 용성은 생명체들에게 본질적으로 간직된 불생불멸하고 일체의 공덕이 들어 있는 근본을 수용하였는데, 그는 이를 ‘本源覺性’이라 명명했다. 그는 본원각성이 번뇌를 만나 다양하게 연기하는 차제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나아가 불교의 인과법에 입각하여 세계와 우주의 생성소멸을 설명하기까지 하였다. 수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두 공부를 강조하고 있다.<sup>35)</sup>

또한 신규탁은 “이 책의 학술사적 의의는 일제하 당시 조선불교계의 교학과 수행 체제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당시 불교계는 심성론적으로 법성의 진여를 본바탕으로

---

33) 『叢書』 제9권, 584.

34) 이 책의 自序에 “大覺教創立十二年癸酉三月十三日”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叢書』 제9권, 477.

35) 신규탁(2016), 469.

하면서, 수행론적으로는 돈오무심 수행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간화선의 전통에 서 있으면서도 교리적으로 화엄·능엄·원각·금강·기신 등을 골격으로 하는 교리 체계를 수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은 백용성의 교학과, 수행관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성격을 갖는다.”<sup>36)</sup>고 평가했다.

책의 제목인 『청공원일』이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텅 비어 둥근 해가 비춘다.”는 뜻이지만, 이것은 중생들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本源覺性’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백용성은 自序에서 “그러므로 내가 ‘淸空圓日’을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空’은 本覺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요, ‘淸’이란 ‘始覺’을 비유한 것이고, ‘圓’이란 둥글어서 모서리가 없음을 비유한 것이요, ‘日’이란 지혜의 본체를 비유한 것이고, ‘光’이란 지혜의 작용을 비유한 것이니, 시방을 모두 비추어 비추지 않은 곳이 없음을 말한다.”<sup>37)</sup>고 했다. 이른바 ‘청공원일’은 ‘眞空이 妙有이고 妙有가 眞空’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백용성은 自序의 첫 문장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諸法)의 진실한 모습은 말로써 가히 할 수 없다.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물러, 세간상이 상주한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진실하구나.”<sup>38)</sup>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백용성은 보충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법(諸法)’이란 세간과 출세간의 萬法을 지칭하여 하신 말씀이다. ‘진실한 모습(實相)’이란 세간과 출세간의 만법의 本源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가히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은 말로도 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각각 본래의 법에 머문다는 뜻이다. ‘세간상이 상주한다’는 것은 세간에 있는 갖가지의 모습이 상주하여 불생하고 상주하여 불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씀은 예컨대 다른 곳(『금강경』)에서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라고 하신 예와는 다르다.<sup>39)</sup>

36) 신규탁(2016), 469.

37) 『叢書』 제1권, 682.

38) 『叢書』 제1권, 681, “覺曰諸法眞實相은 不可以言宣이로다. 是法이 住法位하야 世間相이 常住라 하시니 誠哉라 是言也시여.”

39) 『叢書』 제1권, 681.

위 인용문은 백용성의 독특한 불교관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그는 “‘세간상이 상주한다’는 것은 세간에 있는 갖가지의 모습이 상주하여 불생하고 상주하여 불멸하는 것을 말한다.”<sup>40)</sup>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금강경』의 설과는 背馳된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본론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제1 본원인 각성을 논함(論本源覺性)에서는 “무엇이 불생불멸하는 本源의 심성입니까?”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일단 이 물음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체성은 어떤 모양도 아니기 때문이다.”<sup>41)</sup> 그는 우리의 本性을 두 가지로 논하고 있다. 하나는 性と 相이 서로 상대하는 性이고, 다른 하나는 성과 상의 대립이 끊어진 性이다. 백용성은 후자의 성과 상이 끊어진 性이야말로 법계에 가득하여 상주하며 생함이 없고 상주하여 멸함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 생하고 인연을 따라 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元性이 본래 覺이다. 이것을 백용성은 ‘本源覺性’이라고 命名했다.

제2 본각과 시각과 구경각을 논함(論本覺始覺究竟覺)에서는 본각, 시각, 구경각이 어떻게 다른가를 다루고 있다. 본각이란 고요하면서도 항상 비추고 비추면서도 항상 고요한 본성을 말한다. 본래 오묘하게 갖추어진 본성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시각’이라고 한다. 본성은 무명의 미혹을 녹여 없애고 한번 참 성품의 바탕을 완성하면 다시는 범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구경각이라고 부른다. 또한 구경각은 시각과 본래 다르지 않아서 스스로 깨침과 남을 깨침(自覺覺他)이 원만하여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구경각이라고 한다.

제3 성과 상, 체와 용이 다르지 않음을 논함(論性相體用無二)에서는 성과 상, 체와 용이 다르지 않음을 논하고 있다. 성과 상은 둘이 아니다. 비유하면 파도가 일어남에 전체의 적시는 성질이 그대로 물이고, 전체의 물 그대로가 적시는 성질인 것과 같다. 또한 체와 용도 둘이 아니다. 비유하면 물 전체가 그대로 파도이며, 파도 전체가 그대로 물인 것과 같다. 이처럼 성이 일어나서 상이 되고, 상 그대로가 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

40) 『叢書』 제1권, 681.

41) 『叢書』 제1권, 683, “體非群相인 故니라.”

법이 상주하여 생기지 않고 상주하여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4 유심과 유식과 유물이 하나임을 논함(論唯心唯識唯物三者一致)에서는 유심과 유식과 유물이 하나임을 다루고 있다. 백용성은 “覺性を因으로 해서 변하여 識의 種子가 되니, 이 식을 이름하여 阿賴耶識이라 한다. 식의 본체는 형체도 없고 無記이지만, 이것이 생명체(活物)의 위대한 종자이다.”<sup>42)</sup>고 했다. 이것은 아뢰야식(ālayavijñāna)을 ‘一切種子識’으로 보는 『攝大乘論』의 주장과 일치한다. 無著이 지은 『섭대승론』 권상에 “이 세계는 시작함이 없는 때부터 모든 법의 의지이다. 만약 있다면 모든 道가 있으며, 열반을 증득함이 있다. … 모든 법이 의지하고, 간직되고, 머무는 一切種子識이다. 따라서 阿梨耶라고 한다. 나는 수승한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sup>43)</sup>고 했다. 백용성은 『섭대승론』을 근거로 본성이 일어나서 식이 되고, 식이 변하여 만물이 되기 때문에 세 개는 하나가 된다고 주장했다.<sup>44)</sup>

백용성은 “(마음의) 본바탕(體)은 아무런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통하고, (마음의 본바탕은) 본래 깨어 있기(本覺) 때문에 무엇이든 다 안다.”<sup>45)</sup>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마음(心靈)’은 본각을 의미한다. 본각의 입장에서 보면 본체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곳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전형적인 本覺思想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백용성은 “도의 궁극적 근원은 ‘깨달음(覺)’에서 나온다. 만약 ‘본래의 깨달음(本覺)’을 체험하면 本覺과 始覺이 결코 둘이 아니다.”<sup>46)</sup>라고 했다. 이것은 앞에서 性과 相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 원리와 동일하다. 왜냐하면 본각은 性에 해당되고, 시각은 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백용성은 “마음의 신령함도 역시 그와 같아 큰 의보를 만나면 작용도 역시 크고, 작은 의보를 만나면 작용도 역시 작다.”<sup>47)</sup>고 했다. 백용성은 같은 원

42) 『叢書』 제1권, 693, “原因覺性하여 變爲識種하니 此識이 名爲阿賴識이라. 識體無形無記나 是一箇活物之大種也니라.”

43) 『攝大乘論』 卷上(T31, 114a), “此界無始時, 一切法依止, 若有諸道有, 及有得涅槃. … 諸法依藏住, 一切種子識, 故名阿梨耶, 我爲勝人說.”

44) 『叢書』 제1권, 694, “性起爲識하고 識變爲物이라. 三箇爲一하여 圓融無碍하나니.”

45) 『叢書』 제1권, 701, “體非群相故로 無所不通也오, 本覺故로 無所不知也니라.”

46) 『叢書』 제1권, 703, “道之大源이 出於覺也니, 若悟本覺하면 始本이 一致하여 究竟無二也니라.”

리로 “마음의 신령함도 역시 그와 같아서 몸체가 크고 작음이 달라 작용은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본각의 한 부분이다.”<sup>48)</sup>고 했다. 이것은 심령의 작용도 모두 본각에서 나온 것임을 말한 것이다.

백용성은 “본각의 광명체성은 본래 ‘空’이니 ‘有’니 하는 어떤 모양이 없으면서 (시방 세계)에 두루 충만하고, ‘아뢰야식이라는 바탕(阿賴耶識體)’은 ‘본각이라는 본성(本覺之性)’과 같으며 역시 (시방세계)에 두루 충만하며, 허공이라는 바탕은 아뢰야식이라는 바탕과 같아서 역시 (시방세계)에 두루 충만하고, 공기의 사대 기체도 역시 (시방세계)에 두루 충만하다.”<sup>49)</sup>고 했다. “또 제6식과 제7식이 ‘뚜렷하게 분별’하는 작용을 할 경우, 갖가지로 사안을 변변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없지만, 오직 제8 아뢰야식만은 ‘본래의 바탕(自體)’으로 無記<sup>50)</sup>이기 때문에 본래 업을 짓지 않는다.”<sup>51)</sup>고 했다.

이와 같이 백용성은 阿賴耶識體는 本覺之性和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 때문에 그는 아뢰야식을 불변하는 舍藏識, 種子識, 心王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백용성은 연장선상에서 “선악 자체에는 ‘질료’가 없고 ‘識’ 또한 ‘형체’가 없지만 아뢰야식이 無形의 선악을 품어 훈습하여 다른 生으로 옮겨 가서 선악의 과보를 받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sup>52)</sup>고 했다.<sup>53)</sup>

47) 『叢書』 제1권, 705, “心靈도 亦然하여 報得大而用亦大하고 報得小而用亦小也니라.”

48) 『叢書』 제1권, 705, “心靈도 亦然하여 隨身體之大小不等하여 作用은 有差나 皆從本覺之全分이니라.”

49) 『叢書』 제1권, 736, “本覺之光明體性은 本無空有之相하여 周遍充滿하고 阿賴耶識體는 等本覺之性하여 亦周遍充滿하고 頑空之體는 等阿賴耶識體하여 亦周遍充滿하고 頑空之空氣는 等頑空之體하여 亦周遍充滿하고 空氣之四大氣體도 亦周遍充滿하니니.”

50) 백용성이 이 책에서 말하는 ‘無記’는 초기경전에서 말하는 ‘無記(avyakatha)’가 아니다. 초기경전에서는 말룻가뵈따(Mālunkyaputta)가 붓다께 답변을 요구했던 형이상학적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을 ‘無記’라고 한다.[MN. I, 426-432] ‘無記(avyakatha)’란 ‘기술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 즉 ‘기술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뜻이다.

51) 『叢書』 제1권, 738, “又六七二識이 了別에 種種辨事하여 無所不爲也로되 有第八阿梨耶識은 自體 無記하여 本不能作業也니라.”

52) 『叢書』 제1권, 739, “善惡이 無質하고 識亦無形이나 阿賴耶識이 受薰無形之善惡하여 移於他生하여 受善惡之果報도 亦復如是하니라.”

53) 이러한 윤회설은 아뢰야식을 윤회의 주체, 즉 불변하는 아트만(ātman)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윤회설은 붓다의 무아설과 背馳된다. 이수창(2015b), 153-160 참조.

제17 깨친 뒤에 수행을 논함(論悟後修行)에서는 깨친 뒤에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백용성은 “자신의 본성을 단박에 깨쳐 밑바닥까지 의심이 없어진 뒤에, 참됨에 의지하여 수행하여 본래의 성품에 칭합하는 것을 이룸하여 수행이라고 한다.”<sup>54)</sup>고 했다. 또한 백용성은 “행주좌와 어묵동정 언제 어디에서나 닦을 것도 깨질 것도 없으며, 말하려 하거나 관찰하려 하지 않으면, 오직 나의 본마음이 잘못도 없고 문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 텅 비어 밝으며 스스로 비추어서 고연히 힘쓰지 않는 것을 ‘수행(修)’이라고 이룸한다.”<sup>55)</sup>고 했다.<sup>56)</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책은 제목 그대로 ‘本源覺性’을 드러낸 것이다. 이른바 本覺, 始覺, 究竟覺이 곧 大覺임을 체계적으로 논술한 것이다. 백용성은 『修心論』에서 “도의 근원은 ‘깨달음(覺)’에서 나온 것이다. ‘깨달음(覺)’이라는 것은 본각, 시각, 구경각이 원만하여 둘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sup>57)</sup>고 했다. 이것이 대각교의 핵심 사상이다. 백용성은 『청공원일』에서 논술한 대각교의 교리를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吾道の眞理』와 『吾道는 覺』을 저술했다.

## 2. 『吾道の眞理』

『오도의 진리』는 1937년 6월 9일 三藏譯會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백용성이 대각교의 핵심 교리인 ‘깨달음(覺)’과 그 수행의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한 소책자이다. 이 책은 자문자답 형식으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김광식은 『해제』에서 이 책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54) 『叢書』 제1권, 751, “頓悟自性하야 徹底無疑然後에 依眞修行하야 稱合本性者를 名之爲修이니라.”

55) 『叢書』 제1권, 752, “於行住坐臥와 語默動靜 一切時一切處에 無修無證하며 不澄不看하면 唯我本心이 無非無亂無痴하야 虛明自照하야 不勞心力者를 名之爲修이니라.”

56) 이러한 수행관은 백용성의 독창적인 주장이 아니다. 중국 南宗禪의 전통을 계승한 道信과 弘忍의 東山法門의 견해이다.

57) 『叢書』 제1권, 793.

일반 대중들에게 본성, 각 대원각성, 수행의 방법 등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고구정녕하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 이처럼 『오도의 진리』는 노년의 백용성이 일반 대중들에게 그가 생각하고 있는 수행과 깨달음의 방법을 간명하게 전달한 책자이다. 백용성이 삼계유심(三界唯心)과 만법유식(萬法唯識)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사상서의 성격도 갖는다.<sup>58)</sup>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깨달음(覺)’에 관한 것이다. 백용성은 “나의本性은 내가 깨달아 알 수 없다.”<sup>59)</sup>고 전제하고, 그 본성을 보지 못하는 까닭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그 본성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체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형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깨달음(覺)’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깨달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비록 형체를 보지 못할지라도 전체가 覺이다. 본래로 말이 끊어지고 마음이 없어져 보고 듣고 알 수 없는 이 물건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너희들이 억만 겁을 지내더라도 그 모습을 보려고 하거나 얻으려고 하거나 달리 깨달으려고 하면 깨닫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그것이 자기인 줄 알면 그것이 깨달은 것이다. 달리 깨달은 것이 없다. 본래 깨달은 것이 일체 모든 곳에 나타나는 것이 전체가 깨달음이다.<sup>60)</sup>

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본래 깨달음은 우주에 충만해 있는데, 그것이 자기인 줄을 알면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本源覺性’이 깨달음임을 말한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본원각성은 본래 그대로인데 어찌해서 천당과 지옥의 과보를 받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용성은 “삼계는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데 청정본연하여 일체 모든 허물이 없지만 만법이 오직 알음알이이지만 오직 식이 변하므로 인하여 천당과 지옥과 六途四生을 받는다.”<sup>61)</sup>고 했다. 이것은 識으로 말미암아 육도사생을 받게 된다는

---

58) 『叢書』 제11권, 457.

59) 『叢書』 제2권, 661.

60) 『叢書』 제2권, 662.

61) 『叢書』 제2권, 662.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래 병이 없지만 六根과 六境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六識이 그 가운데서 생기게 되어 병이 나는 것이다. 이 根과 境界가 서로 대치하여 識이 그 가운데서 발생하여 나는 것이다.”<sup>62)</sup>고 했다. 그 이유를 백용성은 “또 만법이 오직 알음알이이니 그 識을 따라서 唯物이나 唯識 혹은 세간의 만법을 나타내게 되니 유물은 곧 유식이며 유식을 떠나고는 유물이 없다.”<sup>63)</sup>고 설명하고 있다.

백용성은 번뇌의 習氣를 제거할 수 있는 몇 가지 수행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했던 수행의 방법은 크게 參禪, 稱名念佛, 呪力이다. 그는 마음의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참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번뇌의 습기가 많은 자는 시심마(是甚麼) 화두, 즉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일체의 알음알이(知解)를 일으키지 말고 단지 疑情에만 전념하여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圓覺大智가 생겨 스스로 마음의 병을 다스리게 된다고 했다. 이처럼 백용성의 참선법은 ‘無字’ 화두가 아닌 ‘是甚麼’ 화두를 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자세한 참선하는 법은 『禪門撮要』, 『覺海日輪』, 『修心論』을 참고하라고 했다.<sup>64)</sup>

칭명염불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의 聖人の 명호를 부르되, 하나만 부르고 여러 성인의 명호를 불러 산란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 성인의 명호를 부르되 語默動靜 行住坐臥에 지극히 불러야 한다.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 부르지만, 나중에는 입으로 부르지 않고 오직 생각만으로 분명해지면 스스로 자기 자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sup>65)</sup>

주력은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인 ‘옴마니반메훴’이다. 백용성은 “이 주력을 지극한 마음으로 행주좌와에 끊임없이 외워라.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 외우되 글자 글자를 역력하고 분명하게 하여 자기 귀에 날날이 들리도록 10만 편 정도를 외워라.”고 권했다. 또한 백용성은 ‘술 먹고 고기 먹는 것이 반야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飲酒食肉

62) 『叢書』 제2권, 663.

63) 『叢書』 제2권, 663.

64) 『叢書』 제2권, 664.

65) 『叢書』 제2권, 664.

無妨般若)’고 말하는 것은 외도의 가르침이니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인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말이 아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三界唯心 萬法唯識이기 때문이다.<sup>66)</sup>

### 3. 『吾道는 覺』

『오도는 각』이란 ‘나의 도는 깨달음[覺]이다’는 뜻이다. 이 책은 1938년 3월 15일 三藏譯會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백용성이 병든 몸으로 華果院에서 집필하여 1937년 6월 20일 탈고했다. 이 책은 自問自答의 형식으로 편집되어 있고, 문장은 한문 현토에 한글 번역을 덧붙였다. 짧은 분량의 소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각사상과 참선 수행법을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다. 한상희는 이 책의 「해제」에서 이 책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 책은 백용성의 각사상, 참선수행론을 간결하게 정리한 저술이다. 백용성은 이 책에서 자신의 수행론을 이해하려면 이 책의 발간 이전에 나온 『수심론』, 『수심정로』를 참고하라고 피력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하여 백용성 수행론의 개요 및 변천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이 책은 백용성 수행 사상서 및 대각사상의 포교서 성격을 갖는다.<sup>67)</sup>

이 책에서는 大覺敎에서 말하는 大覺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즉 백용성이 말하는 ‘覺’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술하고 있다. 백용성은 스스로 覺의 뜻을 듣고자 한다고 말하고, 스스로 그 뜻을 자세히 서술해 나가고 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결론에 기술되어 있다. 그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스로 천지가 무너지고 비고 이뤄지고 머물고 있어 옴으로부터 覺이 근본이 된다. 만일 사람이 깨달지 못하면 마음이 없을 것이며, 어리석을 것이며, 축생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초목 와석과 같을 것이다. 그 覺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 것인가 하면, 본래 깨친 것(本覺)이

---

66) 『叢書』 제2권, 665.

67) 『叢書』 제11권, 493.

며, 비로소 깨친 것(始覺)이며, 궁극적으로 깨친 것(究竟覺)이며, 크게 깨친 것(大覺)이다. 그러므로 이름은 ‘나의 도는 각’이라 하는 것이다.<sup>68)</sup>

백용성이 말하는 깨달음이란 本覺, 始覺, 究竟覺인데, 그것이 곧 大覺이라는 것이다. 백용성은 “대각께서 말씀하시되, ‘첫째는 본각이요, 둘째는 시각이요, 셋째는 구경각이다’라고 하셨다. 본각이라 하신 말씀은 부처(佛)와 祖師가 나기 전부터 ‘本來覺’이라는 뜻이고, 시각이라 하신 말씀은 일체중생의 성품은 본래 각임을 깨달았다는 말씀이며, 구경각이라 하신 말씀은 본각과 시각이 둘이 아니어서 결국 둘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다.”<sup>69)</sup> 고 했다. 이와 같이 깨달음을 본각, 시각, 구경각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大乘起信論』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승기신론』에서 生滅心을 논하면서 본각, 시각, 구경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말하는 바 覺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心體에서 念이 떠난 것을 말한다. 離念의 相은, 허공계와 같아, 두루 퍼져 있지 아니한 곳이 없어, 법계 일상이다. 즉 이것이 여래의 평등법신이다. 이 법신에 의하여 설하여 本覺이라 이름한다. 무엇 때문인가? 본각의 뜻이란 始覺의 뜻에 對하여 설하고, 시각이란 바로 본각에 같아짐으로써 이다. ……

菩薩地를 다한 것과 같은 이는, 방편이 만족하여, 일념이 상응하고, 마음의 初起를 깨닫고, 마음에 初相이 없어, 미세한 念이 멀리 떠난 것이기 때문에, 심성을 보게 되어, 마음이 바로 상주하여, 究竟覺이라 부르는 것이다.<sup>70)</sup>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깨달음에 대해 정성본은 “일체의 번뇌를 끊고 始覺에서 本覺으로 歸入하는 것을 ‘一念相續’이라고 하며, 그때 無始以來의 미혹의 근원을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妄念이 일어나는 근원인 마음의 初起를 깨닫기 때문에 이미 妄念

68) 『叢書』 제2권, 675.

69) 『叢書』 제2권, 670.

70) 馬鳴造, 眞諦譯, 『大乘起信論』(T32, 576a), “所言覺義者, 謂心體離念. 離念相者, 等虛空界無所不遍, 法界一相即是如來平等法身, 依此法身說名本覺. 何以故? 本覺義者, 對始覺義說, 以始覺者即同本覺. … 如菩薩地盡, 滿足方便一念相應, 覺心初起心無初相, 以遠離微細念故得見心性, 心即常住, 名究竟覺.”

이나 分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sup>71)</sup>고 해석했다.

그러면 어떻게 참구하여야 이 미묘한 본각을 깨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백용성은 “큰 도는 분명하여 참구할 필요가 없다.”<sup>72)</sup>고 했다. 그 이유를 백용성은 永嘉玄覺(675~713)<sup>73)</sup> 선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즉 “영가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움을 끊어 행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제거하지도 않고 참된 것을 구하지도 아니한다’고 하셨으며,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닭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고 하셨다. 네가 곧 너인데 무엇을 닭고 무엇을 증득하고자 하며 무엇을 참선하고자 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수행이 필요한 까닭을 백용성은 “지난날에 도 깨친 자를 위하여 큰 도는 결코 참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지만, 오늘에는 도 깨치지 못한 자를 위하여 참선 수도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sup>74)</sup>고 했다. 그리고 三處傳心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끝으로 그는 “내가 옛날에 『修心正路』와 『修心論』에 참선 수도하는 법을 분명히 말하였으니, 그 글에 가서 보아라.”<sup>75)</sup>고 알려두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용성의 수행관은 앞에서 언급했던 東山法門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道信과 弘忍을 비롯한 중국의 初期禪宗에서는 『대승기신론』에 나타난 自性淸淨心을 계승하여 本覺과 始覺의 설을 觀心釋하여 새로운 ‘淨心體’라고 이름하고, 淨心眼으로서 淨心體를 看하게 하는 坐禪法을 수립했다.<sup>76)</sup> 국내의 선사들도 동산법문의 좌선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백용성이 말하는 깨달음, 즉 본각, 시각, 구경각의 개념은 『대승기신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71) 鄭性本(1991), 232.

72) 『叢書』 제2권, 671.

73) 永嘉玄覺(675-713) 선사는 ‘一宿覺’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는 六祖慧能의 十大弟子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燉煌本 『六祖壇經』에는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74) 『叢書』 제2권, 674.

75) 『叢書』 제2권, 675.

76) 鄭性本(1991), 439.

## IV. 맺음말

백용성의 사상은 한마디로 ‘大覺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터득한 ‘깨달음(覺)’을 세상에 널리 펼치기 위해 ‘大覺教’라는 새로운 교단을 창립했다. 그가 말한 ‘大覺’이란 곧 本覺, 始覺, 究竟覺을 일컫는다. 본각이란 佛과 祖師가 나기 전부터의 본래 깨달음 자체를 말하고, 시각이란 일체중생의 성품은 본래 깨달음임을 깨달았다는 것이며, 구경각이란 본각과 시각이 둘이 아닌 하나로 완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이 백용성의 大覺思想이다. 백용성은 자신이 터득한 이 대각사상을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화과원은 농장이나 과수원이라기보다 수행도량, 즉 ‘수도원’이나 총림의 성격에 가깝다. 백용성이 꿈꾸었던 화과원은 禪·教·律을 兼修하는 청정한 수행도량, 즉 叢林이었다. 실제로 이곳에 禪院이 개설되어 운영되었다. 조선불교선종총림 종주 백용성이 1938년에 발급한 安居證書가 남아있다. 또한 백용성의 전법제자였던 邊峰庵의 친필 이력서에 “1936년 3월부터 함양군 백전면 화과원에서 화엄경을 연구하고 三冬에는 修禪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볼 때 화과원은 외부와 차단된 ‘수도원’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용성이 입적한 이후에도 화과원은 그 제자들이 치열하게 수행하고 佛學을 연찬했던 수행도량이었다.

백용성이 만년에 저술한 세 가지 종류의 책을 통해 그의 불교관을 엿볼 수 있다. 그는 『淸空圓日』에서 자신이 창립한 대각교의 핵심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吾道の眞理』와 『吾道는 道』라는 소책자는 대각교에서 말하는 大覺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다 쉽게 서술한 것이다. 이것은 대각사상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저술된 것임은 말할 나위없다.

특히 『오도의 진리』와 『오도는 각』은 대각교가 해체된 이후에 저술되었다. 대각교는 1936년 경 해체되었고, 1938년 朝鮮佛教禪宗에 편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용성은 병든 몸으로 자신의 대각사상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오도의 진리』와 『오도는 각』을 저술했다. 이를 통해 백용성이 비록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대각교』의 문을 닫

을 수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대각사상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백용성이 ‘本源覺性’, 즉 本覺, 始覺, 究竟覺을 大覺이라고 본 해석이 붓다의 본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후학들의 몫으로 남겨둔다.

### [ 참고문헌 ]

*Majjhima-nikaya* (=MN), ed. V. Trencker, 4 vols. London: PTS, 1979.

*Vinaya-piṭaka* (=Vin), ed. H. Oldenberg, 5 vols., London: PTS, 1879-1883.

『大乘起信論』(T32)

『大智度論』(T25)

『法苑珠林』(T53)

『攝大乘論』(T31)

김광식(2016), 「華果院과 백용성, 수법제자의 재인식」, 『大覺思想』 제26집(대각사상연구원, 2016. 12): 111-144.

김달진(1990), 『산거일기』, 서울: 세계사.

東西文物研究院(2016), 『함양 백룡성선사 화과원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6. 9.

백용성대종사총서 간행위원회(2016), 『白龍城大宗師叢書』 20권,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신규탁(2016), 「晴空圓日 해제」, 『白龍城大宗師叢書』 제9권: 469.

심두섭(1933), 「백용성을 방문하고」, 『조선일보』 제89호(1933.6).

이수창(2015a), 「白龍城의 禪農佛敎에 대한 再照明」, 『大覺思想』 제23집(대각사상연구원, 2015.6): 65-94.

이수창(2015b), 「三法印說의 起源과 展開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東方文化大學院大學校.

鄭性本(1991), 『中國禪宗의 成立史 研究』, 서울: 민족사.

조용명(1980), 「노사의 운수시절」, 『불광』 제63호(1980.1).

한보광(2002),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大覺思想』 제5집(대각사상연구원, 2002): 89-124.